



ITU-T SG3

ETRI 선임연구원 **이상우**
 ETRI 연구원, W3C 한국사무국 코디네이터 **박혜진**
 KT 전임연구원 **전승화**
 ETRI 책임연구원, ITU-T TAS 부의장 **이병남**
 ETRI 선임연구원, ITU-T SG3 라포처 **강신원**
 ETRI 정보통신서비스연구단 단장, ITU-T SG3 의장 **박기식**



1. 회의 개요

금번 ITU-T SG3 회의는 2005~2008 회기의 두 번째 회의로서 스위스 제네바 ITU 본부에서 2005년 9월 12일에서 9월 16일까지 5일간 SG3 Chairman인 한국의 박기식 박사의 주재하에 개최되었으며, 53개 회원국 등 총 144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국은 박기식 정보통신서비스연구단장과 TAS 부의장인 이병남 책임연구원 및 SG 3 라포처인 강신원 선임연구원, 이상우 선임연구원, 박혜진 연구원(이상 ETRI), SG 3 라포처인 김철수 교수(인제대), 전승화 전임연구원(KT), 서동진 팀장, 장성일 과장(이상 SKT) 등 총 9명이 참가하였다.

금번 회의의 주요 사항으로는 1) IP Telephony, 2) International Internet Connection(IIC) 및 Internet Traffic Flow Methodology(TFM), 3) NGN, 4) Mobile Termination Rate, 5) Network Externality 등이 토의되었으며, 6) 지난 회의 결과보고, 7) SG3와 관련된 TSAG 회의내용 보고, 8) 3개 Regional Tariff Group의 회의결과보고, 9) Terms and Definitions Rapporteur Group 업무보고 및 작업반의 업무 관련 논의, 10) D.4, D.150, D.180에 대한 개정 권고안 승인 등이 이루어졌다.

2. 회의 주요내용

1) 전체회의(Plenary) 주요 회의결과

- 전체회의는 한국의 박기식 박사(ETRI)의 주재 하에 개최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지난 회의 결과보고, SG3와 관련된 TSAG 회의내용 보고, 3개 Regional Tariff Group의 회의결과 보고, Terms and Definitions Rapporteur Group의 업무보고 및 작업반의 업무 관련 논의, 개정 권고안 D.4, D.150, D.180에 대한 승인 등이 이루어졌음
- ITU-T의 Technology Watch 활동(TD46)과 Cybersecurity Obligations(TD47)와 관련된 보고가 있었으며, User Guide와 관련된 TSAG의 Liaison(TD 48)에 대하여 2006년 6월까지 회원국의 의견을 받아 회신기로 함
- 한국의 이병남 박사(ETRI)가 TAS Group 부의장으로서 TAS Group 회의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또한 박혜진 연구원(ETRI)이 효과적인 ITU-T 권고안 관리방안에 대하여 기고서를 발표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하기로 함
- 본회의(Plenary) 외 3개 작업반(WP) 및 특별그룹(ad hoc) 회의로 구성·진행하였음

2) Working Party 1의 주요 회의결과

■ IP Telephony

- 지난 1월 회의에서 금번 9월회의 전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던 라포처그룹 회의는 기고서가 없는 관계로 무산되었으며, IP Telephony 관련 금번 회의 문서로서는 TAL, TAF, TAS 그룹 회의보고서만이 제출되고 토의되었음
- 미흡한 기고서 제출과 회원들의 소극적인 참여를 이유로 본 그룹이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대부분 회원국들의 본 이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계속성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음
- 라포처인 Ms. Marilyn Cade(미국)를 중심으로 IP Telephony 작업의 진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Mr. Anibal Gabeloni (Telefonica de Argentina)를 코-라포처로 임명하였고, ToR의 수정이 있었음

| 본회의 | WP1 | WP2 | WP3 | 특별그룹 |
|------|-----------------------|----------------------|--------------------|--------------|
| 회의총괄 | 새로운 전기통신서비스 과금 및 회계원칙 | 기존 전기통신서비스 과금 및 회계원칙 | 전기통신서비스 경제적/정책적 요소 | WP 산하 라포처 그룹 |

- 한국은 기고서 5건을 발표

| 기고서 명 | 문서번호 | 결과 |
|-------------------------------------------------------------------------------------------------|-----------|----------------------------------------------------------------------------|
| Proposed approach to Annex C of Recommendation D.140 | D. 14 | ○ TAS Group에서 재 논의후 차기회의에 기고 |
| A proposal for an efficient ITU-T recommendations management | D.18 | ○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하기로 결정됨 |
| Current status of NGN charging related studies | D.19 | ○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하기로 결정됨 |
| Summary report of the TAS Group meeting held in Cyberjaya, Malaysia, from 31 May to 3 June 2005 | TD,52-PLN | ○ Regional Tariff Group Meeting 보고서로 채택됨 |
| A summary for each of the D-Series Recommendations | TD 3-WP2 | ○ 차기 회의에서 나머지 권고안에 대한 요약 결과를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모든 권고안의 요약이 완료되는 차기 회의에서 승인기로 함 |



- WP1에서는 본 라포처 그룹의 리플렉터를 통해 연구를 활성화하고 차기 SG3 회의에 결과를 보고하기를 권고함과 동시에 참여 회원국 및 회원사에 기고서 제출을 독려했음

■ IMT-2000

- 지난 1월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IMT-2000 그룹의 활동은 지속하며, 더 이상의 신규 권고안의 작성 필요없다는 결론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유무선 네트워크의 통합으로 인해 NGN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활성화를 대비하여 본 그룹의 작업 방향은 NGN mobility, 특히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을 제안함
- 차기 SG3 회의에서는 NGN mobility에 관한 작업 진행 경과를 보고할 예정임

■ International Internet Connection(IIC) + Internet Traffic Flow Methodology(TFM)

- 본 안건과 관련한 기고서와 활동하는 라포처의 부재로 활동에 진척이 없었으나, 각 regional tariff group의 회의보고서에서 본 안건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WSIS 제2차 PrepCom 보고서에서도 IIC 관련 권고안을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본 안건과 관련된 라포처그룹의 활동이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 또한, WGIG-report와 최근에 발간된 ITU IP Policy Manual의 검토가 본 라포처그룹 회의에서 이루어짐. 중국의 Mr. Zheng이 Traffic Flow Methodology의 라포처로 선임되었으며, EC도 IIC 라포처 선임을 요청하였고 유럽의 회원국들이 상의하여 추후 통보하여 주기로 함

■ NGN

- NGN 이슈는 WP1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된 주제였으며, 주요 논의 내용은 크게 NGN 선도 SG인 SG13으로부터의 연락문서(TD 2, 4, 5, 6)에 대한 대응논의와 한국의 김철수 교수의 기고서(D19)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음
- SG13 liaison statement의 대응논의로 첫째 ITU-T SG의 NGN 관련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와 NGN Release planning liaison officer의 임명의 요청(TD 2)에 대하여 liaison officer로 김철수 교수가 결정하였으며, Carrier Grade Open Environment reference model의 검토 요청(TD 5)이 있었으나, 본 reference model은 NGN charging issue와의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
- 8th FGNGN 회의의 결과보고서(NGN Release 1)의 검토(TD 4)를 통해 6.1.7 Accounting, Charging and Billing절의 문장수정을 제안하는 연락문서를 SG13에 보내기로 결정하였으나, TD 6인 SG13의 NGN accounting, charging and billing에 대한 기술도구의 개발의 진행상황과 개정된 Y.ngn-account 문서에 대한 liaison의 SG3 의견에 대한 응답은 미국의 제안에 따라 본 이슈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한 후에 응답하기로 하였음
- 한국의 김철수 교수는 “Current Status of NGN Charging related studies”의 기고서를 통해 향후 SG3에서 필요한 NGN 과금 및 정산 관련 연구주제 등을 발표하였음

3) Working Party 2의 주요 회의결과

■ Mobile Termination rate

- 지난 1월 회의에서 구성된 Rapporteur Group

의 국제 이동정산료 관련 연구 수행을 위해 작성된 Questionnaire의 보완사항 및 데이터 수집 방안 등을 보고하고 토의한 결과 Questionnaire (Draft) 내용 중 설문조사 목적의 부합성, 질문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일부 문항의 수정 보완하여 채택하였음

- 미국, 이태리 및 영국의 경우 설문서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Rapporteur Group의 terms of reference 이상의 질문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특히 영국의 경우 설문서에 의해 수집된 자료의 보안(Confidentiality) 문제를 제기하였음
- 데이터 수집을 위한 별도의 Coordinator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데이터 수집의 방법을 중심으로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토의 결과 데이터 수집의 방법으로 기존 TSB의 데이터 수집 방법론을 준용하기로 결정하였음

■ New accounting method

- 국제통신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정산절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구성된 Rapporteur Group의 그간의 연구활동 결과로서 새로운 국제전화 정산을 위한 신규 절차(Creditor party establishes account) 추가를 위한 D.170 수정 및 정산기간의 단축을 위해 D.195 권고안 수정 방안을 발표하였음
- 논의 과정 중 미국은 정산기간 단축 개정시에는 보다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영국 및 나이지리아 등이 시간 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기존 50일에서 30일로 정산기간 단축에 동의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수정된 권고안의 승인과정을 개시하기로 함
- 이후 작업으로 새로운 정산절차 적용에 따른 결과로서 다른 ITU 권고안의 수정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정산기간 단축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연구토

록 결정되었음

■ Annex C of Recommendation D.140

- ETRI(이상우 박사)에 의해 제출된 기고안에서는 D.140에 제시된 국제전화 정산을 위한 3가지 협상 방안 외 추가적으로 Benchmark target rate approach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거부터 LRIC 모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Consensus가 이루어진 상황임을 지적하였음
-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Recommendation D.140내 구체적인 Costing methodology 방법론으로 LRIC 방법론을 명기하는 것은 Costing 방법론의 flexibility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입장에 따라 TAS Group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새롭게 제안하기로 결정됨

■ Dispute in international accounting settlement process

- Ms. Huber(Germany)에 의해 국제전화 정산 관련 관계 당사자간의 의견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절차를 규정할 수 있도록 권고안 보완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위한 라포처 그룹 결성에는 이견이 많아서 결성되지 못함
- 미국의 경우 이와 관련된 이슈는 Commercial Issue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Commercial issue에 관여할 경우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아직 이를 Rapporteur Group에서 다루기에는 시기상조임을 강조하고, 영국의 경우에도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적 하자여부를 검토한 후 연구를 수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

- 그러나, 일본, 시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에 대한 연구 수행을 위한 Rapporteur 그룹 결성에 동의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대신 Ms. Huber가 주관하는 리플렉터를 만들어 논의결과를 차기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 Replies on the questionnaire on settlement rates

- Counsellor Mr. S. Tanake는 권고안 D.140과 관련하여 매년 국제정산료 추이 분석을 위해 총 28개 국가의 33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국제정산료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이분석 결과를 발표하였고 내년에도 현재와 같은 질문서를 통해 이와 동일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기로 함
- 분석결과에 대해 Mali 대표단은 hubbing을 통한 트래픽 포함여부에 대해 질의를 하였으며, 토의결과 차기 회의시 Mali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고서를 제안하기로 함

■ Telecommunications for Disaster Relief (TDR)

- Les Homan(INMARSAT)에 의해 TDR 관련 UN의 공유번호 자원의 할당에 관해 ITU-T SG2의 연락문서 및 TDR에 대한 권고안 초안의 내용이 소개되었으나, 구체적인 요구사항 등이 제기되지 않아, 참가국들의 추가적인 연구 및 의견수렴 필요성이 대두되어 차기 회의시 재논의하기로 하였음

■ Summary for each of the D-Series Recommendations

- ETRI(강신원 박사)는 D-Series 권고안의 요약에 대하여 WP2와 관련된 64개의 권고안을 규정하고 기존 요약 정리되어 있는 11개 이외에 22개의 권고안에 대한 요약결과를 발표하였음
- Rapporteur Group은 차기 회의에서 나머지 권고안에 대한 요약결과를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모든 권고안의 요약이 완료되어 발표되는 다음 회의에서 승인기로 함

4) Working Party 3의 주요 회의결과

■ Network Externality

- 라포처인 Mr. W. Neu가 개인적인 사항으로 더 이상 라포처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기고서도 제출되지 않았으나,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외부효과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으며, Frontier Economics를 비롯한 여러 관련 기관의 보고서 등 관련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D-sector 등에 liaison을 보내기로 결정함
- 새로운 라포처로 Mr. Middle Louw(Vodacom)와 한국의 강신원 박사가 코라포처로 선임됨

■ Alternative Calling Procedures

- C4(Consideration of shared use of Mobile country code and Mobile network code)와 D16(International Revenue Share Fraud)이 논의 되었으며, D16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하여 Inmarsat의 Mr Les Homan이 Revenue protection mechanism 라포처그룹

이 결성됨

- C4는 information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본격적인 연구는 numbering aspects를 다루고 있는 SG2의 결과가 나온 뒤에 시작하기로 결정함
- D16의 'fraud'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본 라포처 그룹의 draft ToR이 작성되었고 Mr. Matthew Harrison-Harvey(Vodafone)와 Mr. Marciano Bohr(수리남)이 코라포처로 선임됨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 미국과 영국의 대표단이 TD53(The final report of the council working group on ITR)을 소개하였으며, 이사회의 ITR 워킹그룹 활동종료 결정에도 불구하고 WP3/3는 라포처 그룹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 Mr Lerner에서 Ms Abdallah로 라포처가 교체되었으며, 코라포처는 그대로 유지됨

■ Narrowing the Digital Divide

- D21(Proposed update to action plan of SG3 for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이 논의되었으며, D21에서 제안된 SG3 회의 및 관련 워크숍/세미나 등의 오디오 웹캐스팅의 가능성에 관해 알아보기로 결정함

■ Reply to Questionnaire

- 콜백에 관한 자료인 TD2가 소개되었으며, WP3/3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함

3. 결언

금번 SG 회의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이 10명 이상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IP Telephony와 International Internet Connection(IIC) 및 Internet Traffic Flow Methodology(TFM), Mobile termination rate, NGN 관련 이슈 및 Network Externality 등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으며, 특히, Network Externality 코라포처(Co-Rapporteur)로 한국의 강신원 박사가 선임되어 향후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SG3 WP3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D.140에 제시된 국제전화 정산을 위한 3가지 협상방안 외에 한국이 추가적으로 제시한 Benchmark target rate approach 방법을 TAS Group 회의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TAS Group 회원국과 논의한 후 차기회의에 새로운 기고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으며, NGN charging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위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접근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본 SG3 회의는 기존 및 차세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정책 및 규제를 다루는 정부 및 통신사업자 주축의 회의로서 향후 NGN 및 인터넷 관련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 도입에 따른 과금 및 요금정산 등에 있어 국내 통신사업자 및 유관기관의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차기 SG3 회의는 2006년 6월 19일 - 27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며, 2006년도 2월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SG3/WP3급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TTA